

# 차원의 현상과 중도통합성

## ▶ 1.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영화 컨택트는 SETI 프로그램의 제안자인 칼 세이건의 소설 컨택트를 원작으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하고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매커너히가 주연을 맡은 1997년작 영화이다. 베가성으로부터 우주인의 신호를 감지한 엘리는 마침내 그 안에서 외계인들의 또다른 정보를 발견하는데, 이는 1인승 행성간 워프 게이트 설계도였다. 거대한 워프게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이 탑승한 캡슐을 떨어뜨리는 식의 설계도면인데 처음에 이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 해석을 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우주인이 보낸 메시지는 3차원인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2차원 평면도로 그 설계도를 해석하려고 했다. 우주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서도 차원의 문제는 중요하게 지적된다.

- ▶ 또한 엘리를 사랑하는 팔머가 마지막 심사에서 종교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다. 인식의 차원의 높이에 있어서 종교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 세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엘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공상과학' 같다고 비난을 받는다.

“공상과학요? 맞아요.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게 황당하죠. 진짜 황당한 얘길 해 볼까요? 옛날 비행기란 걸 만들려는 두 형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태우고 새처럼 나는 거요. 황당하죠? 음속을 나는 건 어때요? 달나라 여행과 원자력은요? 화성으로 가는 거는요? 공상과학이죠? .... 조금만 넓게 바라보세요.....”

새로운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만 넓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 우주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진풍경이 벌어진다.

'외계인 복장을 하고 안테나를 들고 다니는 무리'

'UFO 납치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팀'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들'

'배가성을 목적지로 하는 대포를 만들어 사람이 포 속에 들어가 있는 팀'

'히틀러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전국 베가 자동차 클럽'

'예수님은 외계인이다'하면서 글과 사진을 만들고 그 아래서 율동을 하는 팀

'기타를 들고 엘튼 존 흉내를 내며, 비바라스 베가스'하며 노래하는 팀.....

이것은 마치 인식의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해도 될 듯 싶다.

- ▶ 또한 몰래 침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우주선이 폭파된다. 가장 저차원적인 흐름은 폭력이다.
- ▶ 우주선을 타고 만난 미지의 존재는 아빠다. 저차원은 고차원을 자신에게 익숙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 ▶ 우주선은 붕괴되고 엘리는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구출된다. 외부에서 바라본 것은 발사와 함께 엘리가 탄 우주선이 붕괴된 것이지만 우주선 내부에선 18시간의 대화 기록이 남겨진다.
- ▶ 영화 [솔라리스]와 [스피어]에서도 우주공간이나 심해에서 고차원의 존재를 만난다. [솔라리스]는 우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즈마 형상의 존재와 만난 뒤 환상에 빠져드는 현상이 나온다. 플라즈마 현상은 3차원 공간의 가시적인 형상을 뛰어넘은 고차원적 존재라는 것을 은유한다. 플라즈마 현상을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환상이나 공포 등 자신들이 생각한 환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주인공은 이혼한 전처가 나타나 언쟁을 벌인다.
- ▶ [스피어]에서는 심해를 운항 중이던 잠수함이 우주에서 날아온 빛의 덩어리인 고차원 존재를 접촉한 뒤, 선원들의 공포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 ▶ 2. 저차원은 고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 ▶ 고차원적 존재를 접촉한 뒤 경험한 주체들은 모두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모든 존재가 기의 파장을 띠고 있고 서로간에는 상호침투, 상호공유가 즉각 일어나기 때문이다.
- ▶ 하지만 접촉 후에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억과 상념, 감정이 현실에서 실제의 움직임으로 재현되어 비행사와 선원이 극심한 등과 대립, 공포에 시달린다.
- ▶ 차원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현상
- ▶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 구분되고 대립하는 입자들이 하나의 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
- ▶ 2차원 면의 이곳과 저곳을 1차원으로 본다면 국소적으로 동떨어져 존재하지만 3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입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통합하여 볼 수 있다.

### ▶ 3. 고차원의 중도통합성

- ▶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낮은 차원의 분리된 형상을 통일장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의 원리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분이 바로 전체이고 전체가 바로 부분인 부분-전체(holon)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중도의 전체적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
- ▶ 우리는 훨씬 높은 차원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3차원 공간관과 1차원 시간이 라는 틀로 편집해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익숙하다. 영화는 우주비행사들이나 선원들이 접촉한 현상을 스스로의 인식이 머물고 있는 3차원의 틀로 해석하지 못하는 과도기를 보여준다. 과도기라는 것은 인식의 차원이나 세계관이 기존의 차원과 더 높은 차원이 혼재되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 ▶ 즉 주체의 인식과 물리적 대상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분리된 것이지만 고차원적인 상황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실재와 비실재가 혼재한다. 갈등의 원인은 그들이 만난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물리적 힘을 얻는 고차원의 상황이다. 상념이나 정서가 오히려 입자적 경계로 한층 강화되어서 파편화되고 분열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 ▶ 영화의 문법 역시 여전히 3차원 공간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실제 인터넷에서 인간의 욕망은 여과없이 현실화된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인격모독에 노출된 사용자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네트라는 장 속에서 인간의 무의식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 ▶ '나는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발생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정자, 난자가 결합하여 입태가 이뤄지는 순간 그들 각각의 입자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 양정의 입자가 만나 쌍소멸하면서 새로운 통합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빅뱅에 버금가는 우주적 장을 형성한다. 입자 경계가 소멸하면서 하나로서 통합되고 이는 우주와 호흡하는 열린 회로가 된다. 음양은 각각 어느 한쪽을 주장할 수 없는 중도에 이른다.
- ▶ 이렇게 神에 이르는 과정은 우주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지만 분명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 ▶ 입태하는 순간은 양정의 입자 경계는 순식간에 쌍소멸하고 중앙에서 밀도 높은 기운이 형성되면서 백회 위로 기운이 강렬하게 상승한다.
- ▶ 양정이 상박하자마자 중도를 이루면서 그 느낌은 머리 중심에서 백회 위로 강력하게 상승한다. 서로 상반된 기운의 입자라고 인식되었던 저차원의 존재가 인연화합하면서 강렬한 연린 우주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 ▶ 입태의 선천지기는 우주로 열린회로로 통합된다.
- ▶ 3차원의 폐쇄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나'라는 존재 역시 이미 그 출발은 고차원의 열린 회로이며 온갖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최고의 본모습은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던 단계에서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 ▶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낮은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입태 이후에 우리가 독립된 개체단위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 ▶ 호흡과 섭식을 통한 에너지 교류과정, 심층의식의 고유과정, 수면 등을 통한 재생과정 등을 살펴보면 모든 존재의 바탕은 우주법계의 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 ▶ 낮은 차원의 인식 즉 폐쇄회로에서는 우주의 장이 개별 생명체의 외부세계가 되지만 열린회로에서 본다면 우주 장이야말로 생명체의 본 바탕이 된다.
- ▶ 수행은 생명체에 외래적인 목표를 부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근거하고 있고 함유하고 있는 본래의 면목을 만나려는 것이다.
- ▶ 모든 것은 법성자천이연法性自天而然으로 이루어진다.